

소련의 化學戰

—우리의 脆弱地點 유럽—

Lt. Col. Gary Eifried

◇역자주◇

아프카니스탄에서 보여준 소련軍의 化學作用劑 남용은 化學戰에 대한 恐怖意識을 되살리게 했으며, 西方陣營 각국의 이에 대한 關心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敵의 裝備 및 施設을 破壞하지 않고 점령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物質의 再活用 側面과 戰爭經費의 절감이란 側面에서 살펴볼 때 앞으로의 戰爭, 특히 局部戰에서 化學戰을 감행할 可能性이 짙어지고 있다.

北傀와 對峙하고 항상 戰爭의 危險을 안고 있는 우리의 立場에서 볼때 소련의 영향하에 있는 北傀가 化學作用劑를 사용, 化學戰을 전개할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化學戰에 대한 여러가지 問題點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戰略과 戰術計劃樹立에 있어서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915年 4月 22日 벨기에, 이프레스地方, 獨逸戰線에 設置한 시린더에서 뿜어 나오는 毒가스 소리는 새로운 次元의 戰爭樣相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것이 바로 最初의 化學戰의 등장이었다.

그 당시는 이 새로운 武器의 완전한 意味를 사람들은 充分히 認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技術이 戰爭터에 登場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結果에 대해서 오늘날에 와서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教皇 이노센트 2世(Pope Innocent II)가 “하느님과 文明人에 대한 憎惡”이라고 비난한 石弓과 같이 有毒한 物質을 사용함은 不道德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1次大戰 후에도 國際的인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戰爭手段을 제한하려는 試圖는 극히 짧은 期間만 성공할 수가 있었다. 이노센트 2世는 態度를 완화하여 石弓을 回教徒에 對抗해서는 사용케 했으며, 이태리 사람들은 이디오피아에서 化學物質을 사용했고(1935), 日本 사람들은 中國에서(1937), 統一아랍共和國은 예멘에서 化學彈으로 空襲을 감행했다(1967).

15世紀에 등장한 火藥이 칼과 창을 완전히 代置하는데 450년이 걸린 것처럼 化學戰도 아직까지는 軍事的 思考나 計劃에 있어서 補助的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1922年 이래 美軍事教範에는 化學戰의 공격과 방어에 관한 研究, 開發 및 實習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이러한 일은 一線指揮系統 勤務者들의 도움이나 관심을 끌지 못한채 化學部隊 技術者들이 주로 수행하여 왔다.

1975年 이래 化學作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化學戰과 戰鬪作戰을 통합하여 언급한 教範이 두개 밖에(FM 100-5 “작전”과 FM 21-40 “화학무기에 관한 “Bible”)없는 實情이다.

戰鬪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細部事項을 전투병에게 教育시키기 위해 만든 “戰鬪方法”이라는 叢書中, 다른 한 教範에는 化學戰 狀況下에서의 作戰에 관해서는 몇개 小節로서 各個兵士의 生存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점으로 보아 化學戰은 아직도 庶子取扱을 받고 있으며 指揮官들의 態度도 “化學戰은 化學을 하는 親舊들이나 다룰 問題다”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化學作用劑가 사용되면 그

영향은 化學部隊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軍人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戰爭에서 化學作用劑가 撒布된다면 그 戰爭의 性格은 대항해 싸우는 軍隊와 指揮官의 계획과 活動까지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지금 우리들의 생각을 갖추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現代化學戰의 本質과 격렬함을 理解해야만 한다.

소聯의 化學戰 능력은 美國防省 高位官吏들이 맹방의 “취약지점”이라고 말하는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에 危脅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評價는 NATO의 化學戰 능력과 바르샤바 條約軍의 有毒한 환경하에서의 戰鬥準備狀態를 比較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제는 分明히 소聯이 과연 “化學作用劑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어느때 사용할 것인가?”만이 문제일뿐이다.

戰術 核武器의 相互報復危險이 있다고 해서 西方이 갖추지 못한 그들의 能力사용을 주저하면서 까지 바르샤바 條約軍이 NATO에 대한 攻擊을 억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소聯 軍事文獻에는 化學戰은 特殊武器의 範疇에서 벗어나 一般武器의 範疇로 이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급 分析家들은 이미 소聯 軍 師團長들은 一般作戰에서 化學作用劑의 사용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結論짓고 있다.

소聯 觀測通들은 化學作用劑의 初期사용에 대해 두가지 기본적인 假定하고 있다.

첫째는, 保護裝備를 방치해 두고 防毒面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NATO軍을 장악하기 위해 바르샤바 條約軍이 國境을 돌파하면서 바로 化學戰을 전개할 경우이다. 이 戰術은 軍人과 民間인 모두에게 恐怖를 일으키고 死傷者를 늘뿐 아니라 무서운 混亂狀況에 이르도록 無秩序를 加重시키는 잇점이 있다는 것은 疑心의 여지가 없다.

둘째는, 바르샤바 條約軍이 먼저 재래식 攻擊을 시도한 후 NATO軍의 抵抗이 구축됨으로서 잃게 될 攻擊力을 되찾기 위하여 아마도 開戰後 5日 내지 7日 이내에 決定的 시점에서 化學武器를 사용하는 것이다.

化學武器의 사용억제가 崩壞되면 소聯은 어마

어마한 量의 有毒作用劑를 사용할 것이며, 소聯 兵器庫에는 박격포, 야포, 多彈頭 로켓 및 地對地 미사일의 化學作用劑 彈頭와 化學作用劑로 충전된 航空爆彈이 쌓여있다.

FROG 로켓과 SCUD 미사일 彈頭는 30%까지가 化學彈으로 推計되고 있으며, 大砲의 砲彈은 20%까지가 化學彈으로 推計되고 있다.

소聯이 보유하고 있는 化學作用劑의 總量은 美國이 4만 2천톤인데 비해 약 3십 5만톤으로 推算된다. 따라서 바르샤바 條約軍은 全戰線에 걸쳐 매일 千톤 이상을 쉽게 살포할 수 있다.

주요 運搬裝備는 射程거리 20km인 122mm BM-21 多彈頭 로켓으로 10초에 40발의 化學彈을 發射, 일개 中隊의 防禦地域 규모를 400파운트의 有毒한 作用劑로 완전히 덮을 수가 있다. 이때 쓰이는 化學作用劑는 효력이 빠르고 신속히 증발하는 奇蹟적인 血液作用劑인 Cyan 化水素일 수가 있다.

NATO地域에 이런것을 사용하면 NATO軍, 특히 防毒面을 쓰지 않은 防禦兵士 중에 化學作用劑에 의한 死傷者를 생기게 할수 있고, 잠시후 자신들은 保護裝備를 사용하지 않은채 NATO地域을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作用劑가 數分 이내에 그 機能을 수행하고는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다.

소聯軍 師團이 갖고있는 多彈頭 로켓(MRL) 18문으로 광범위한 戰線地域에 40초 이내에 720발을 쏠수 있으며, 10분 이내에 彈頭를 再裝填할 수 있다.

多彈頭 로켓의 공격력은 소聯軍 師團에 속한 54문 내지 60문의 122mm와 152mm野砲로 더욱 補強될 수 있으며, 攻擊距離도 연장이 가능하다. 이들 野砲는 神經性 및 水泡性 作用劑를 발사한다.

FROG 로켓은 700파운트의 作用劑로 積載하고 60km까지 飛行하여 깊숙히 있는 目標物을 공격하며, 동시에 소聯 陸軍合同軍(Combined Arms Army)의 SCUD 旅團은 2,000파운트의 化學作用劑를 積載한 B型 미사일(射程거리 280km)로 더 깊숙히 위치한 飛行場, 通信網, 兵站設備, 港口 및 주요 司令部등을 공격하게 된다.

미사일은 飛行中 진한 神經作用劑를 放出해서

數坪方에 이르는 地域에 致命的인 비를 오게 함으로써 특히 무서운 것이다.

戰場全域을 완전히 덮어 씌우기 위하여 作用劑 폭탄으로 武裝한 戰術 폭격기로 化學戰을 감행할 수 있다.

소聯 戰術은 약 25km 내지 35km 정도의 좁은 戰線을 돌파하는데 1km당 砲 100문 정도를 사용 集中攻擊을 하는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各砲에서 化學彈 한개씩만 쏜다하더라도 25톤 이상의 作用劑가 한번의 일제사격에서 살포될 수 있다.

이렇게 莫大한 化學作用劑 살포능력을 구사하게 된다면 一線兵士들은 완전한 化學戰 保護裝備를 數시간 또는 數일간씩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후방지역에서는 매번 攻擊에 적어도 하루 이상 汚染효과가 지속되는 作用劑 攻擊을 3리마다 한번씩 받을 수 있다. 이런 狀況이 兵士와 戰鬪 및 戰爭에 미치는 충격이 어떨 것인가? 이제는 化學戰을 정면에서 부딪치게 되었다. 이런 狀況이 兵士들에게 미칠 身體的, 精神的인 긴장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죽음의 亡靈이 실고 오는 산들바람이 불때마다 致命的인 液體와 접촉할지도 모르는 環境下에서 지내며, 답답한 保護衣 속에 갇혀야 하고 視界를 制限받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쉬는 것도 制限을 받는 防毒面을 써야 하고, 손에는 觸感을 무더게 하는 고무장갑을 끼야하고, 발에는 거추장스러운 고무장화를 신고 있어야 한다.

兵士들은 언제나 極度の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飲食을 먹거나 코를 풀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防毒面을 벗을때 自身의 목숨은 文字 그대로 제손에 달려있다. 경련이 나거나, 코를 훌쩍거리거나, 숨이 헐떡거리더라도 作用劑에 中毒되지 않았나 하는 幻想에 사로잡히게 되며 하루에도 몇번씩 “내가 作用劑에 中毒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化學作用劑에 感染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나 同僚들이 진단을 하여서 적합한 解毒劑를 決定해야 하고 잘못된 解毒劑나 필요없는 것을 사용하면 效果도 없을뿐더러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指揮官은 통솔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部下

들은 命을 받거나 理解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모두가 保護裝備를 착용하여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識別할 수가 없다. 또한 部下의 주의를 끌 수도 없다.

최근의 試驗에서는 分隊長이 돌을 던져 分隊員의 주의를 끌며 手信號를 따르게 하는 方法에 依支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指揮官이 訓練 받은 대로 여기 저기를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점점도 할때 착용하고 있는 保護裝備의 무게 때문에 쉬 지치게 되는 데도 作用劑 砲彈이 날아 오거나 化學作用劑 잔류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部下들을 保護狀態下에서 장시간 지내도록 격려도 하고 강요까지 해야 한다. 이런 狀況下에서 部隊의 임무 ——敵이 점령한 橋頭堡를 攻擊하거나 補給物者를 輸送하거나 탱크를 수리하는 등 ——를 수행해야 한다. 과연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限界가 있게 마련이다.

수많은 試驗에서 兵士들이 化學保護衣와 保護裝備를 완벽하게 着用하고서 기본임무를 효율적으로(狀況에 따라서는 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立證되었다. 이런 結果는 이들이 적절히 訓練을 받아 익숙해졌을 때만 가능하다. 이와는 反對로 兵士가 化學保護裝備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엄한 訓練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긴장하에서 肉體的으로나 心理的으로 자기 임무를 充實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試驗에서 입증되었다. 제대로 訓練받지 못한 兵士는 心理的으로 심각한 程度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된다.

獨逸이 1次大戰中 化學武器를 사용할 때는 西部戰線에 形成된 교착상태를 打開하려고 했던 것이나 失敗로 끝났는데 그 이유는 獨逸指揮官들이 保護裝備를 갖추지 못한 聯合軍이 입을 毒가스 공격의 破壞效果를 이용할 準備를 갖추지 못해 聯合軍은 保護措置를 취할 시간을 얻었고 獨逸軍의 잇점은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化學作用劑 및 그 防禦措置가 점점 정교해지고 作戰을 뒷받침하는 毒가스 이용이 多樣해짐에 따라 戰鬪에서 化學作用劑가 두가지 주요한 效果가 있다는 것이 分明해졌는데 死傷者를 내게 하여 防禦軍의 機動性과 效率性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化學武器를 훈련과 장비가 잘된 軍人에게 사용하였을 때에도 兵士가 제한된 保護措置를 취하여야 하므로 임무수행에 時間과 努力을 더하게 하여 이들의 能力을 감소시킨다. 이때에도 化學作用劑에 의한 死傷者가 생긴다. 이런 경우는 주로 損傷이 있는 保護裝備를 착용했거나 警報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兵士중에서 생기겠지만 또한 무더운 氣候에서는 保護衣를 착용함으로써 熱病患者가 생기게 된다.

持續性 化學作用劑로 被擊된 部隊는 사람과 裝備의 汚染을 제거해야 하므로 후속조치 및 기동이 지연될 것이다. 感染效果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地型은 數日 또는 數주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汚染 및 對汚染鬪爭을 무시하는 方便은 즉각적인 戰術的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더 많은 死傷者를 낼 危險이 있다.

따라서 化學作用劑를 잘만 사용하면 軍隊를 特定 非汚染地域으로 우회하도록 하여 이동을 지연시키고 기동공간을 제한시킨다. 이 모든것이 攻擊대상이 되는 주요 施設物, 裝備, 重要地點 등을 破壞하거나 永久的인 제한을 가하지 않고 실시된다.

소聯의 戰術理論에 따르면 化學作用劑를 正規射擊計劃의 일부로 삼고 있으므로 化學戰을 機動과 反擊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持續性 作用劑로써 我軍通信網을 단절시켜 特定戰略요충에 我軍을 묶어 두거나 迂廻하도록 만든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戰場에서 我軍의 機動性을 제한하여 能動的 防禦에 중요한 兵力集中을 흐트러 놓기 위하여 作用劑를 사용하는 것이다. 戰術指揮官은 서투른 決心과 임무를 수행해야할 狀況에 직면하게 되며 필요한 保護等級과 그러한 保護措置를 취했을 때 部隊가 수행할 수 있는 能力間에 均衡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兵士가 식사나 개인적인 日常用務(면도와 같은 사소한 것도 化學戰에서는 決定的으로 중요하며, 防毒面이 兵士의 얼굴에 밀착되도록 깨끗이 면도하여야 한다)를 볼수 있도록 計劃을 세우고 汚染되지 않은 場所를 물색해야 한다.

部隊가 장기간 汚染과 시름해야 한다면 결국 指揮官은 汚染이 제거된 지점을 확보하고 一線部隊를 철수시켜 이곳을 교대로 이용해야 한다.

指揮官은 또한 作用劑 사용과 攻擊과 防禦計劃에 化學戰 導入에 대한 자신의 能力을 심사숙고해야 하며, 敵을 化學作用劑로 어떻게 선제공격하여 敵이 동일한 被害를 받게 하겠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化學戰은 兵站面에서도 惡夢이 된다. 막대한 量의 防禦裝備(대부분 1回用 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美製 保護衣는 液體 化學作用劑 透過에 대해 汚染후 6~24시간 정도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후는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化學作用劑 攻擊이 사흘에 한번씩이라 해도 한달에 1人當 약 10벌이 소요된다. 줄잡아 計算해도 化學戰에서 1個 師團을 지원하는데 약 30톤의 裝備 및 補給品이 每日 必要된다.

防禦裝備 品目외에도 反擊하려면 砲陣地에 化學彈 輸送을 증가시켜야 한다. 兵站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은 支援設備, 兵站基地, 豫備貯藏所, 飛行場, 港口 등이 FROG, SCUD와 飛行機의 주요 攻擊目標가 된다는 점이다. 이런 施設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除毒하는데 드는 努力때문에 가장 決定的 시기에 補給能力이 감소된다.

汚染된 장비와 補給品을 폐기함으로써 再供給의 문제가 야기된다. 整備要員은 수리할 차량을 除毒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次汚染에 의한 死傷者가 생길 危險이 있다.

化學戰과 관련된 醫學上的 문제도 엄청나다. 1次大戰중에 생긴 120만명의 化學戰 負傷者중 9만명이 사망했다. 化學戰 중에도 醫療機關은 化學戰으로 인한 負傷者를 치료하면서 일반 負傷者도 취급해야 하므로 이때 일반 負傷者가 作用劑에 감염된다.

따라서 치료하기 전에 負傷者를 除毒하고 나서 汚染防止시설에서 치료하거나 醫療要員이 완전한 保護裝備를 착용하고 일을 해야 한다. 戰場에서 오염된 負傷者나 屍體를 후송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바르샤바 條約軍이 來日이라도 유럽을 攻擊한다면 我軍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몇年前

보다는 많이 살아남을 것이다. 1975年 이후 化學戰 防禦準備에 대한 重要性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態度가 많이 진전되었다. 지금은 相當量의 化學戰 防禦品들이 준비되었다.

최근 유럽에 駐屯하고 있는 兵士는 保護衣, 早期警報器, 探知器 및 解毒劑 등으로 裝備되어 이들 裝備로 더욱더 많은 訓練을 받고 있다. 戰爭物資가 備蓄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化學要員을 적절한 地位에 配屬시키고 있다.

化生放 防禦中隊와 팀이 편성되어 주요 戰鬥部隊과 兵站部隊를 지원하고 있다. 防禦準備 狀態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資金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大統領이 事業承認을 하지는 않았으나 陸軍은 信賴할 수 있는 抑制力을 확보하기 위하여 化學報復用 備蓄分을 現代化할 豫算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個人과 部隊의 生存만을 念願에 두고 노력을 경주했으나 1975年 以前 우리의 빈약했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我軍이 단순히 生存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는 것 만으로는 有毒한 環境下에서 作戰을 效果的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意味는 아니나 어떻게든 이러한 目標을 향해 노력이 기울여 지고 있다.

1977年 이래 陸軍은 化學戰 狀況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陸軍의 訓練 및 評價프로그램에서는 化學戰 狀況下에서 임무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化學戰 技術을 典型的 戰鬥자본에 통합하는 것이 化生放 防禦準備에 열쇠가 된다. 이런 노력은 化學戰에서 戰鬥能力을 向上시키는데 하나의 중요한 役割을 한다.

陸軍의 訓練 및 評價프로그램중 寫實的인 化學戰 연출에서는 軍隊가 有毒한 環境下에서 임무를 成功的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訓練을 시킨다.

指揮官은 部下들이 化學保護裝備를 완전하게 착용하고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보아야 이런 條件下에서 이들의 能力과 限界를 認識하게 된다. 部下들도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알게되며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事項을 배우게 된다.

化學戰下에서 作戰能力을 향상시키는 法則은 세마디로 訓練! 訓練! 訓練! 뿐이다. 훈련으로 兵士는 生存技術을 습득하고 訓練으로 部隊의 能力과 脆弱點이 드러나고 訓練으로 고조된 긴장하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能力과 信念을 얻게 된다.

陸軍의 訓練 및 評價프로그램에서 提示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더 높은 水準의 훈련으로 克服해야 한다. 化學戰 實演에 化學要員만 참여하고 指揮官이나 일반 兵士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寫實的인 化學戰 危脅下에서의 脚本에서 指揮官이 化學戰下에서 決心해야 할 힘은 決定을 하도록 한다. 指揮官은 汚染效果가 기동력에 미치는 바를 고려해야 하며, 化學的 報復策을 선택해야 한다.

化學彈 發射計劃, 防禦物資 再補給 및 化學作用劑의 효과를 상세할 措置등이 每 訓練에서 실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化學戰을 “만약 사용한다면?”이란 꼬리표를 달 것이 아니라 주요 戰爭計劃의 基本概念으로 고려해야 하며 計劃立案者는 化學武器가 사용될 것이며, 軍隊의 機動과 能率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假定해야 한다.

이러한 假定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能力을 過大評價하게 되고, 우리의 需要를 過小評價하게 되며, 兵力을 잘못 運用하고 잘못된 補給物資를 輸送하게 된다. 各 계층에서는 化學戰 狀況下에서 우리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計劃을 發展시켜야 하며, 訓練을 실시하여 이 計劃이 제대로 맞는 가를 確認해야 한다.

指揮官은 化學戰을 決心하는 과정에서 더욱 責任感을 認識해야 하고, 이는 部隊가 陸軍訓練 및 評價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發展할 수 있다.

그러나 兵士와 마찬가지로 指揮官도 基礎訓練이 필요하다. 통솔력 事例研究 開發, 化學作戰에서의 문제 및 그 解決에 관한 會議, 化學武器의 有效性 및 그 효과를 제시하는 戰鬥指揮官 短期教育課程設立 등이 作戰上的 문제해결을 위

해 필요한 모든 武器理論을 發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George Clemenceau에게(그리고 오랫동안 化學部隊에서 근무해온 同僚들에게)罪悚하지만“化學戰을 化學部隊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化學戰을 現實 그대로 認識해야 하며, 化學戰은 兵士에게나 이들이 싸우는 戰鬪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慘禍를 초래할 武器란 것을 認識해야 한다.

化學戰을 모든 方面의 軍事的 思考와 敎育에 통합시켜야 할 하나의 戰鬪力 형태라는 것은 深刻하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앞으로의 戰爭에서 이에 맞서 싸울 態勢가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Army, 1979 崔錫範 譯)

◇ 兵器 短 信 ◇

◇ Scampi 戰場監視 레이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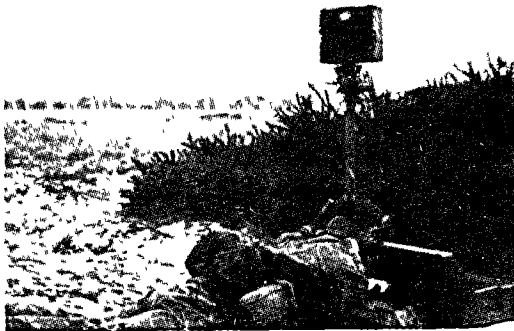
英國의 RSRE(Royal Signals and Radar Establishment)는 1979年 12월에 新型 短距離戰場 監視레이더를 공개했다.

Scampi라고 불리는 이 레이더는 英國 國防省의 步兵中隊 레이더 要式條件에 따라 PRE와 Marconi-Elliot가 共同으로 개발한 Shrimp의 變型이다. Scampi는 아직 技術示範段階에 있으나, 여러개의 技術評價用 모델이 제작됐고, RSRE側은 이 레이더가 1980年代初에 提起되는 새로운 要式條件을 充足하는 데에 適合한 것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Scampi는 한 사람이 運搬可能하며, 모두 半導體化되었고, 높은 J밴드에서 作動하는 코히어런트送信器를 갖고 있다.

平面型 안테나는 2km 距離로, 120°에 걸쳐 부채꼴 走査를 한다. 標의 捕捉은 自動으로 이루어지며, 이 標은 멀리 떨어진 信號處理表示裝置에 特정한 符號로 나타난다.

總重量은 約 10kg 정도로 電池의 選擇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최종



決定을 보지 못했다.

(International Defense Review, 2/1980)

◇ BETA ◇

美陸軍과 空軍은 戰場情報의 實時處理·中繼를 통해 武器의 統合運用 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해 BETA(戰場 및 標의 資料獲得體系)를 개발하고 있다. BETA는 바르샤바 條約軍의 火力優勢에 對應키 위한 몇가지 계획중의 하나이다.

BETA는 陸軍의 師團 및 軍團級과 戰術司令部에 자동화된 컴퓨터處理情報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 현재 妥當性 檢討段階에 있다. 이것은 15가지 서로 다른 偵察裝備에서 보내오는 報告를 蒐集, 分析, 配布, 및 表示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可用한 地上軍과 空軍火力을 統合運用할 수 있어야 한다.

BETA와 連結될 感知裝備를 보면 다음과 같다.

- ELS(電波發射體 標定體系)
- GUARD RAIL V
- OV-1D MOHAWK (Motorola 社 APS-94D 側方觀測 레이더)
- PAVE MOVER(Assault Breaker를 위해, 位相配列走査를 하는 X밴드의 側方觀測 레이더)
- QUICK LOOK II (1982년부터 사용할 空中搭載 戰場情報獲得體系)
- REMBASS(遠隔操縱戰場監視體系)
- SOTAS(遠距離標의 捕捉體系)

(Armada International 6/1979)